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2021. 11. 29.(월) 15:30	배포일시	2021. 11. 29.(월) 14:0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 박지훈 (044-215-4570)	담당자	김상엽 사무관 (ksy7715@korea.kr)
	기획재정부 요소수 대응 실무지원단 문경호 (02-2100-8771)		주해인 사무관 (haein1216@korea.kr)
	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최진영 (044-200-2211)		안혜리 사무관 (gloria7@korea.kr)
	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염보영 (02-2100-7675)		천성희 사무관 (shchun19@mofa.go.kr)
	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채수경 (044-205-3101)		전용우 사무관 (braverain88@korea.kr)
	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이종태 (044-201-1891)		서정우 사무관 (quepasa@korea.kr)
	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정석진 (044-203-4910)		임경섭 사무관 (kslim00@korea.kr)
	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정성훈 (044-202-2550)		박준희 사무관 (swer21@korea.kr)
	환경부 교통환경과 황인목 (044-201-6920)		송태곤 사무관 (stgtoto1@korea.kr)
	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박진홍 (044-201-4016)		김병채 서기관 (bcheck@korea.kr)
	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허만욱 (044-200-5710)		양도형 사무관 (ydh87@korea.kr)
	국세청 조사2과 김승민 (044-204-3602)		정해동 사무관 (jung0506@nts.go.kr)
	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한민 (042-481-7810)		조광선 사무관 (kwangseoncho@korea.kr)
	조달청 원자재비축과 노배성 (044-215-2770)		전연수 사무관 (jys21c@korea.kr)
	경찰청 장비담당관 김성구 (02-3150-2036)		김종애 경감 (k17165@police.go.kr)
	소방청 장비총괄과 김문용 (044-205-7680)		권영철 소방경 (sakyc@korea.kr)

제20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

- ☐ 이덕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.29(월) 08: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*를 개최하였음

* 국무조정실, 외교부,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국세청, 관세청, 조달청, 경찰청, 소방청 등 참석

- 정부는 요소수 시장의 생산·유통·분배 등 물량 수급 상황, 해외물량 확보 진행상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, 12월 충분한 요소 재고량 확보 이후 요소수의 생산·유통을 지속적으로 안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

□ 첫째, 주요 10대 생산업체 중심으로 생산 제고 노력을 지속한 결과 전체 국내 생산물량*은 평일의 경우 1일 소비량(60만 리터)의 2배, 주말은 1.5배의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

* 전체 생산량(단위: 만 리터) : (11.23) 136 (11.24) 117 (11.25) 135 (11.26) 119 (11.27) 83

- 특히, 5대 생산업체 분석 결과, 올해 11월(11~26일) 요소수 생산·출하량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.2배, 1.3배 많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요소수 생산·출하가 정상화되고 있음을 확인
- 한편, N社가 베트남에서 확보한 물량 중 차량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요소 1,470톤은 배분을 희망하는 차량용 요소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 가능 여부, 공급 판매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였고, 금일 중 생산업체별 배분 물량을 확정된 뒤 계약절차 등을 거쳐 N社에서 차량용 요소수 생산업체로 물량을 조속히 배분할 계획

□ 둘째, 정부는 생산·유통업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100여개 중점유통 주유소* 중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로 생산물량이 신속히 배분될 수 있게 조치함으로써 중점 유통 주유소의 주말 유통 상황이 지난주보다 개선*되는 모습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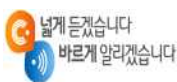
* 중점 유통 주유소 중 재고가 200리터 이하인 주유소의 비중이 11.27(토) 18시는 28.8%(지난주 대비 3.6%p↓), 11.28(일) 18시는 42.1%(지난주 대비 2.0%p↓)

- 정부는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일(11.28) 주요 생산업체의 공급망 중 화물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유소 10개소를 중점 유통 주유소로 추가 지정하였으며, 금일도 15개를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중
- 아울러 11월 26일부터 T맵을 통해 요소수 재고정보를 당초 1일 2회에서 2시간 단위로 갱신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이며, 금주중 네이버, 카카오 등을 통해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
- 이러한 주유소 재고정보 공개 확대와 병행하여 향후 중점 유통 주유소를 정유사 직영 주유소, 알뜰주유소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검토중
- 한편, 요소수 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*함에 따라 수입 물량을 공급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중점 유통 주유소로 물량을 신속하게 배분하여 수요자가 벌크 외 페트병 등 다양한 형태로 요소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

* 일별 요소수 수입물량(톤): (11.1) 0 (11.5) 10 (11.15) 246 (11.25) 340 (11.26) 550

- 셋째, 중국 既 계약 물량 18,700톤 중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인 L社 3,000톤은 통관수속, 선박섭외 등 수입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한 결과 예정대로 금일 오전 7시 롱커우항을 출항하였으며, 12월 1일 저녁 울산항에 입항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으로 동 3,000톤은 도착하는 대로 12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L社 생산 공장으로 바로 입고될 예정

- 또한, 11월 23일 수출 전 검사를 통과한 L社의 또 다른 3,000톤은 11월 26일 중국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 초 중국 전지양항에 선박이 도착하는 대로 국내 반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중
 - 한편, 11월 18일 검사를 통과한 2,110톤 물량도 개별 건 별로 12월 초부터 중국을 출항하여 점진적으로 국내 반입 예정
- 넷째, 환경부 등 중앙부처 합동 단속반과 지방자치단체 단속반은 긴밀히 협력하여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,
- 향후에도 요소수 생산물량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지 여부 및 부당한 가격인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계도해 나갈 계획
- 다섯째, 건설·물류업체 조사 결과 생산업체가 주유소 외에 건설·운수·물류 업체 등으로도 상당량의 물량을 공급하고 있어 요소수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
- 서울, 부산, 세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소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물량이 입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